

2017년 제51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보고

국제부



■ 기 간 : 2017년 7월 22일(토)~7월 28일(금)

■ 장 소 : 독일 베를린

■ 한국대표단(총 13명)

- 단장 : 한순덕(협회 회원)

- 대표 : 손석련(협회 이사)

김점동(협회 이사)

김한우(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위원)

강윤자(협회 회원)

김병수(협회 회원)

문홍석(제주도의회)

정 숙(협회 회원)

- 경기대회 출전 선수

김봉철(한국스테노)

김소라(한국스테노)

김재일(한국스테노)

김천웅(한국스테노)

이보람(국회)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26개국, 488명 참가

- 참가국 명단 : 가봉, 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 체코, 카메룬, 캐나다,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 참가목적

- 각국의 기록문화와 속기의 국제적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 속기 발전방안 강구

- 우리나라 의회 속기시스템 홍보
- 각국 의회의 속기 및 회의록 관련 정보 교류 및 현안 논의
- 독일 의회의 속기시스템과 회의록 발간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속기경기대회 참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홍보

■ INTERSTENO 총회 등 행사 일정

일자	장소	일정
7월 22일(토)	Hollywood media hotel	참가자 등록
	Hollywood -pinewood	Council meeting 1 참석
7월 23일(일)	Delphi Film Palast am Zoo	총회 개회식 및 환영만찬
	Hollywood	IPRS meeting 1 참석
7월 24일(월)	Hollywood	전시회 참석
	Rackow	Real Time speech capturing competition 참가 및 채점
7월 25일(화)	Hollywood -Kino Neue Lupe	Conferences - IPRS 참석
	독일 의회	독일 의회 방문 및 속기시스템 관련 보고 청취
7월 26일(수)	Hollywood -pinewood	Council meeting 2 참석
	Hollywood -Bel Air restaurant	Council dinner 참석
7월 27일(목)	Hollywood -Kino Neue Lupe	INTERSTENO 총회 참석
	Delphi Film Palast am Zoo	시상식
7월 28일(금)	Haus Zenner	송별만찬
		Excursion 4 - Spreewald with Kahnfahrt

■ INTERSTENO 총회 행사 주요 내용

1. 개회식

독일 베를린 Delphi Film Palast am Zoo에서 개최된 총회는 오프닝 공연 후 우리 팀에서 준비해 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 각국 참가자



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되었다.

회장의 개회 선언 후 각국의 대표들이 자국 국기를 들고 인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한순덕 단장이 대표로 단상에 올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과 인터스테노에 참가하게 된 소회를 밝히며 인사하였다.

2. Council meeting(중앙위원회)



결산과 예산 관련 회계보고 및 온라인대회 수입과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이 이루어졌다. 신임부회장에 Russel Page(미국), 심판위원장에 Georgette Sante(벨기에), 재정위원장에 Danny Devriendt(벨기에), 과학위원장에

Carlo Eugeni(이탈리아), 교육위원장에 Tang Keliang(중국)이 유임되었다.

다음 2018년 INTERSTENO Council & IPRS 개최지는 터키의 이스탄불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9년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 개최지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로 결정되었다.

또한 경기대회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적발 시 벌점 부과 여부, 인터스테노 로고 사용, 속기의 유네스코 등록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3. General Assembly(총회)

Council Meeting에서 사전 논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재정위원장인 Danny Devriendt로부터 인터스테노 지난해 결산과 내년 예산에 대한 회계보고가 있었다.

정관 개정 사항으로는 인터스테노 수입 내역에 온라인대회 비용 및 의회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추가하고, 이사회와 심판위원의 제안은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부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인터스테노의 활동을 개선하고 정관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정관 개정이 투표를 통해 의결되었다.



또한 2018년도 INTERSTENO Council & IPRS 개최지는 터

키의 이스탄불로, 2019년 제52차 INTERSTENO 총회 개최지는 이탈리아 사르데냐로 결정되었다.

보드멤버의 임기 만료 등으로 신임 보드멤버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번 총회 투표에 의해 결정된 보드 멤버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 Rian Schwarz-van Poppoel(네덜란드)
- 부 회 장 : Russel page(미국)
- 사무총장 : Danny Devriendt(벨기에)
- 멤버 : Emrah Kuyumcu(터키)
- 멤버 : Krystian Wawrzynek(체코)

4. IPRS meeting(7월 23일)



IPRS 코디네이터 Rian 사회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각 주제 발표 후에 질의와 답변이 진지하게 이어졌다.

▲주제발표

- Roberto La Rocca(네덜란드) : Quality qualified
- Ingeborg Mulders(네덜란드) : Quality in parliamentary reporting in the Netherlands
- Fabrizio Verruso and Dario Savalli(이탈리아) : Quality in reporting in Italy
- Minori Arai(캐나다) : Quality of real-time reporting at the Senate of Canada
- Wouter Zwijnenburg(네덜란드) : Language authority in the Dutch Parliament

- Carlo Eugeni(이탈리아) : Introduction to ASR
- Paolo Paravento(Pervoice) : Presentation about ASR products
- Henk-Jan Eras(네덜란드) : Speech-to-Report
- Rian Schwarz-van Poppel(네덜란드) : Pros and cons of automatic voice recognition in reporting

5. conferences(7월 25일)

conferences는 2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4개의 세션(Quality by Education, Quality in Research on Shorthand, Quality in Human-machine Interaction, Quality in the Profession)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1) Quality by Education

- ① Hans Treschwig(독일) : Different degrees of the sufficient handwriting quality between longhand and stenography
- ② Tsuguo Kaneko(일본) : The effect of German Cursive School in Stenography to Japanese, Chinese and Korean Stenography
- ③ Stefan Loffler(독일) : Steno 3.0:stenography & the information age

2) Quality in Research on Shorthand

- ① Akihito Hirano(일본) : A new Cursive Bilingual Stenography system for English and Japanese for personal use 'EPSEMS'
- ② Daniele Metilli-Giulia Accetta(이탈리아) : The Odyssey Shorthand -about deciphering less widespread systems
- ③ Jorge Bravo, Azat Ambartsoumian & Diana Campi(아르헨티나) : The shorthand for music & dance-written words remains

3) Quality in Human-machine Interaction

- ① Arjan van Hessen(네덜란드) : Investigation in the field of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 ② Wim Gerbechs(네덜란드) : Quality with Velotype (human & machine)
- ③ Fabio Angeloni & Paolo A. Michela-Zucco(이탈리아) : The Michela stenotype system as a useful support to disabled people

4) Quality in the Profession

- ① John Vice(영국) : Quality in the profession of reporting props in the UK

- ② Eero Voutilainen(핀란드) : Quality of Verbatim Reports in Finland
- ③ Owain Wikins(영국) : Reporting languages other than English—the case of reporting Welsh at the House of Commons
- ④ Tatsuya Kawahara(일본) : What makes a quality transcript in Parliamentary reporting

6. 독일 의회 방문



독일 의회는 하원(Bundestag)과 상원(Bundesrat)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임기 4년의 하원은 598석으로 직접선거와 정당비례대표제의 혼합 형태로 선출된다. 연방상원은 주 총리, 주 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 정부에서 선출한다.

현재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으나 1999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으며 건물 천장은 태양열에너지를 위해 유리돔으로 지어졌다.

먼저 독일 하원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독일 하원의 속기시스템과 의사록에 대한 Barbel Heising(의회속기사양성 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는 후 각국 회원들 간 미팅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어 의회 관람을 하였다.

- 독일 하원 Shorthand Writer's Service의 업무 및 의사록 작성시스템

1. 독일 하원 속기 부서의 업무
모든 본회의의 속기록 작성과 위원회 및 기타 기구의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회 속기사를 양성한다.
2. 본회의의 속기
독일 하원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신속한 게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의사록이 완성된다.

- 1) 총 16명의 속기사가 5분 동안 하원 회의를 기록한다.
- 2) 디지털 오디오 녹음을 이용하여 약 60분 이내에 보조타이피스트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서 회의록의 초안을 작성한다.
- 3) 이때 연설의 스타일이나 내용의 변경 없이 명백한 발음 실수나 문법적 실수 또는 구어체와 문어체 사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만 수정한다.
- 4) 속기사들은 80분 후에 다음 회의 속기를 위해 회의실로 돌아간다.
- 5) 8명의 편집담당자 중 1명이 완전성, 언어적인 정확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30분 정도 초안을 검토한다.
- 6) 검토된 초안은 발언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원에게 보낸다.
- 7) 같은 날 2명의 최종 편집 담당자가 의사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인쇄된 형태로 다음 날 인터넷에 게재된다.

3. 의사록의 수정

독일 하원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 따라 모든 발언자는 의사록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발언자가 수정을 원한다면 발언이 끝난 후 약 2시간 후에 발언의 초안 기록을 보낸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의 의미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언자가 최대 2시간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의사록은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의원은 의사록의 어떠한 내용도 수정할 권한은 없다.

4. 하원의 위원회 및 기타 기구의 회의 의사록

- 1) 위원회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회의, 중요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다른 기관이 개최한 회의 및 청문회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위원회 및 기타 기구의 의사록의 절차는 본회의 의사록의 절차와 다르다. 속기사는 최대 2시간 이내로 속기하며 특수한 경우 발언자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속기사 양성 과정

독일 의회 Shorthand Writer's Service에는 속기사 양성을 위한 부서가 있으며 신규 속기사 채용과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훈련 기간 동안 신입 속기사는 숙련된 선배 속기사와 함께 실제 회의에 참여하며 의사록 작성 방법과 의회 속기 연습 그리고 의회에 관한 특별한 지식 등을 배운다. 신입 속기사는 문학 관련 석사학위와 숙련된 속기실력 모두 요구되며 어느 정도의 속기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트레이닝 코스에 참여할 수 있다.

7. 속기경기대회(7월 23일 ~ 7월 24일)



인터스테노 속기경기대회는 총 7개 종목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Real time speech capturing 종목에 김봉철, 김소라, 김재일, 김천웅, 이보람, 이상 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예선전과 최종 전국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속기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하였으며, 경기 결과 김봉철 회원이 2위에, 김천웅 회원이 4위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9. 시상식 및 송별만찬

각 종목별로 33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Real time speech capturing 대회에서는 중국의 장 속기사가 1위, 한국의 김봉철 속기사가 2위, 이탈리아의 Danilo menghi 속기사가 3위, 김천웅 속기사가 4위에 올랐다.



▲각 국가별 메달 수상 인원(총 91개)

체코(33), 이탈리아(12), 중국(14), 터키(11), 독일(11), 미국(5), 헝가리(2), 한국(1), 벨기에(1) 네덜란드(1)

시상식 종료 후 송별만찬과 파티를 하며 각국의 회원들은 서로 축하하고 기념품을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그간의 긴장을 풀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자리를 가졌다.



■ 성과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속기 현황과 의회속기 및 기록문화를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 Real time speech capturing 종목에서 2위와 4위를 수상함으로써 한국 속기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 IPRS 미팅과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각국의 속기와 기록문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상영과 기념품 전달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 현재 인터스테노에서 김한우 과학위원회 위원과 손석련 교육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이동욱 부천대 스마트속기과 학과장이 감사로 선임되어 우리나라가 인터스테노에서 입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건의사항

- 각국의 주제 발표를 들으며 한국의 속기 및 기록 시스템이 여러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우수성을 주제 발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적극 알리고 또 우리의 속기 및 기록 시스템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스테노에 참가할 대표단을 지금의 선정 시기보다 앞당겨 선정함으로써 주제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인터스테노 총회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인터스테노는 7개 종목의 속기경기대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참가 선수들은 여러 종목에 동시에 출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단계의 선발 과정을 통해 실력 있는 선수들이 출전해 온 만큼 우리 언어에 맞는 종목을 찾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속기계의 위상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개 종목 중 적합한 종목을 사전조사를 통해 미리 선정하고 선수 선발의 시기를 앞당겨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